

유영국 연보

책임 작성 이인범(상명대학교 교수)

『유영국 저널』 창간호(2004.11.11)의 「유영국 연보」 이후 13년이 흘렀다. 작가의 삶과 작품 조사 연구에 착수하며 계획표 같이 작성되었던 연보는 작년 탄생 100주기 기념전 카탈로그 『유영국 절대와 자유』(국립현대미술관)에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실렸다. 그동안의 『유영국 저널』의 자료 축적 덕분이다.

『유영국 저널』 제9집에는 오류, 형식의 일관성 결여, 어설픈 문체 등을 바로잡아 더 완성도 높은 「유영국 연보」를 실는다. 그렇다고 아쉬움이 말끔히 지워진 것은 아니다. 「유영국 연보」도 한국미술사 다시쓰기가 그렇듯이 끊임없이 지속될 일이다. 공적 영역의 아카이브 구축이나 미술사 연구와 더불어 「유영국 연보」가 빠른 시일 내에 더 보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러두기

- 본 연보는 화가 유영국의 작품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7년 11월 현재 확인가능한 전시 및 출판 이력은 모두 기재하고자 하였다.
- 단, 작품의 소장이나 수복 등과 관련된 기타 정보 정리는 뒤로 미룬다.
- 모든 기록은 리플렛, 카탈로그, 신문 및 잡지 기사, 증서, 행정문서 등 1차 자료에 기초하였다.
- 기록의 형식이 일관성을 잃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확인 수정 보완할 수 없는 경우, 기록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시기의 다음과 같은 1차 자료들을 원본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전시회의 주최자, 주관자, 기획자 불분명, 2) 전시회 주최기관과 개최 장소 구분 모호 혹은 기록 형식의 일관성 결여, 3) 출판 작품의 표기(제작연도, 재료 및 기법, 크기, 표기 형식 등) 일관성 결여, 4) 기타
- 학적부(경성 제2고등보통학교, 문화학원 등)나 병력기록(서울대학병원 등) 등은 소실되거나 보관부실로 현존하지 않아 2차 자료나 기억에 의존해 기술했다.
- 이 연보는 현재 진행형이다. 독자들의 따가운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화가 유영국과 교우했던 미술인들이나 자손들에 의해 작품, 리플렛, 사진, 일기, 편지, 메모, 신문기사, 잡지 등의 기록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생과 성장



유영국 생가

1916

4월 7일 강원도(현재는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됨)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216번지(현 울진읍 말루길 118-21)에서 아버지 유문중(劉文鍾, 1876-1946)과 어머니 홍동호(1880-1963) 사이에서 4남 4녀 중 여섯째 3남으로 태어나다. 본관은 강릉이며, 시조는 문양공(文襄公) 유진(劉鎡)이다.

유씨 가문의 원래 생활 터전은 강원도 원주였으나 1840년대에 증조부 유한열(劉翰烈, 1800-?) 시기에 울진으로 이주했다. 조부 유재업(劉載業, 1845-1913)은 울진과 부산 간 해상 상업으로 약 2,000석 규모의 지주가 되어 조상의 묘를 강원도 울진군 대흥리 가시령 시냇골(불영계곡)에 쓰고, 강릉의 고가(古家)를 매입하여 옮겨지어 현재의 유씨 가문의 생활터전을 다졌다. 조선시대에 울진이 주요한 보부상 루트였으며 가문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유 씨 가계는 조선시대 후기 보부상의 뿌리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안정에 기초하여 아버지 유문중은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며, 조선 말에 거액의 군자금을 의병장 신돌석(申堧石, 1878-1908)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나라를 빼앗긴 1925년에는 제동학교를 설립하는 등 난세를 살며 사회와 교육에 대한 입장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특히 인간에 대한 두터운 신뢰로 어릴 적부터 유영국이 어떠한 판단이나 행동을 선택하든 자율성을 존중하여 봉건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에 낯선 화가의 길을 걷는 데에 늘 버팀목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1926

5월 울진공립보통학교(당시 5년제)에 입학하다.

울진공립보통학교는 1908년 명동학교로 개교하여 1912년 울진공립보통학교로 학제가 변경된 후 1924년부터는 9학급으로 편성되었다. 유영국의 생가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울진 읍내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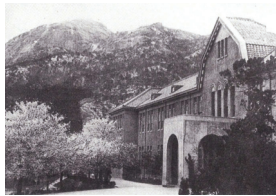
1930년대



울진공립보통학교 졸업증서(1931년 3월 24일)



유영국과 담임교사, 학우들. 상경 기념 (1931년 3월 말)



제2고보 교사 전경



제2고보 기숙사 전경



유영국과 학우들
(1931년 12월, Choin Shaku,
Koula Baku, Baikayo,
Lyu YoungKugg 등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유영국 기숙사 4호실 학우들

1931

3월 12일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이후 '경성 제2고보'로 약칭, 현 경북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른다.

3월 17일 경성 제2고보 합격자 통보를 받는다.

울진공립보통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다.

유영국은 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학과 성적은 매우 우수하였으며, 그가 그린 그림이 교장실에 걸리고 담임교사가 칠판에 원을 그려보라는 말에 동그랗게 잘 그려 칭찬받았다는 회고로 보아 그림 그리기에도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졸업 동기생은 134명으로 대부분 남학생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월북한 최학소(崔學韶, 1916~?) 등이 있다. 같은 학교 출신 최만유는 제19회 졸업생으로 안조업에 종사하며 평생 가깝게 지냈다.

4월 4일 경성 제2고보에 입학하다.

미술교사 사토쿠니오(佐藤九二男, 1897~1945)와 장욱진(張旭鎭, 1917~1990)을 만나다.

경성 제2고보는 3·1운동의 물결 속에 1921년에 설립된 5년제 고등학교로 앞서 유영국의 둘째 형 유영숙이 제1회로 졸업했다. 입학 동기생은 모두 159명으로 그 가운데에는 후에 《신사실마전》, 《2·9동인전》 등을 함께 하며 평생 동반한 화가 장욱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동국대총장을 역임한 미술사학자 황수영(黃壽永, 1918~2011), 정치가 박병배(朴炳培, 1917~2001) 등이 있다.

유영국에게 경성 제2고보에서 미술교사 사토 쿠니오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사토 쿠니오는 시라카바파(白樺派) 등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예술관의 소유한 만주사변 이후 군국주의가 지배했던 시절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그는 1926년 6월부터 1944년 1월까지 경성 제2고보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여러 학생들에게 영향을 드리웠다. 그의 지도 아래 유영국뿐만 아니라 장욱진, 임완규(林完圭, 1918~2003), 김창억(金昌億, 1920~1997), 이대원(李大源, 1921~2005), 권옥연(權玉淵, 1923~2011) 등 훗날 대한 화단을 대표하는 걸출한 화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스승의 자유정신을 기리며 1961년부터 《2·9 동인전》을 여러 차례 열기도 했다. 유영국에 앞서 사토 쿠니오의 지도를 받은 이들로는 제4회 졸업생 정현웅(鄭玄雄, 1911~1976), 심형구(沈亨求, 1908~1962) 등이 있다.

1932

2월 초 전 학생이 눈 속 행군을 실시하다. 이후 매년 1, 2월 중에 눈 속 행군을 지속하다.

1933

1월 장욱진이 건강상의 사유로 휴학하다.



불국사에서 유영국과 학우 박우요



석가탑 앞에서 유영국과 박우요 등 학우들



석굴암에서 교사와 47명의 학생들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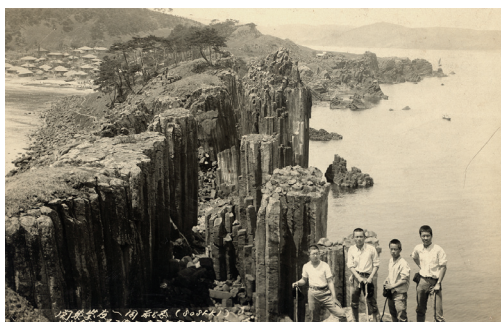
수학여행, 신계사(新溪寺)



수학여행, 구룡연



유영국과 학우들, 송년기념



유영국 관동지방 출신 학우들
(1934년 5월 11일, 금강산 홍석정에서)

5월 중순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다.

5월 하순 《조선미술전람회》를 관람하다. 이후 매년 5월 하순에 조선미술전람회를 관람하다.

10월 27일 미술교사 사토 쿠니오가 도상봉(都相鳳, 1902-1977), 공진형(孔鎭衡, 1900-1988), 이마동(李馬銅, 1906-1981), 이시구로 요시카즈(石黑義保), 야마구치 다케오(山口長男, 1902-1983), 도다 카즈오(遠田運雄, 1891-1955) 등과 《청구회(靑邱會) 창립전》(10.27-10.30, 경성 미스코시백화점 화랑)을 개최하다.

이 전시는 훗날 유영국의 작가활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드리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야마구치 다케오는 몬드리안을 비롯한 추상미술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34

4월 초 경성 제2고보 4학년이 되어 학급 급장을 받다.

4월 18일 경성 제2고보생들이 보병 제78연대 군기제(軍旗祭)에 참가하다.

5월 중순 신계사(新溪寺), 만물상, 구룡연, 홍석정 등 금강산 지역과 원산항 등에 수학여행을 다녀오다.

가을 미술부에 더 자주 드나들며 사토 쿠니오의 지도를 받다.

12월 5일 경성 제2고보에 병기고 상량식을 여는 등 날로 학교 교육이 군국화 과정을 걷다.

연말 일본인 담임교사로부터 급장으로서 학생들의 동향이나 비행을 밀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아 구타를 당하다. 그에 불복하여 졸업학년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자퇴하다. (후에 경북고등학교 제11회 졸업생으로 추인됨).

고보시절 학적 자료는 6·25 전쟁 중 불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학업성적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특히 수학 과목에서 우수했다. 미술교사 사토 쿠니오에 대한 흠모와 더불어 미술 과목 역시 좋아 했다. 이른 나이에 독립하여 자취를 하면서 옷 깎는 일 등 모든 일에 자립적이고 치밀하였다. 과묵한 성격으로 교우관계는 그리 폭 넓지 않았지만, 사진 기록으로 보아 강원도 출신 학우들이나 함께 기숙사에 묵었던 학우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35

2월 4일 강남스튜디오에서 친구들과 도쿄 유학길을 떠나며 기념 촬영을 하다.

2월 초 도쿄에 가 요코하마 소재 상선학교(商船學校)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고보 중퇴로 좌절되다. 이 즈음 만형 유영숙은 도쿄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매형 김광준(1915-1971)이 주오다이카쿠(中央大學) 전문부 법학부에 재학 중이었다. 대개의 조선 청년들이 그랬듯이 일제 총독부 식민지 관



경성 제2고보 학우들. 도일 직전(1935년 2월 4일)



제5회 《독립미술협회전》 출품작이 실린 엽서(1935년 4월)

료의 길을 걷기 싫어 대양을 누비는 마도로스를 꿈꾸며 도일했다. 그 뜻이 꺾이자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길이 화업이라고 생각하고 SPA연구소에 나가 데생 공부를 시작하다. SPA연구소에서 길진섭(吉鎭燮, 1907-1975), 김환기(金煥基, 1913-1974), 김병기(金秉騏, 1916-) 등을 만나다.

2월 23일 도쿄 문화학원(文化學院) 유화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다. 자유로운 학풍으로 소문났으며 학교령에 따른 학교가 아니어서 입학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던 터에 경성 제2고보 미술교사 사토우 쿠니오의 조언을 받아들이다.

3월 거처를 도쿄시 시부야구 센다가야 온초메 719(東京市 澁谷區千駄ヶ谷 四丁目 七一九 長崎様方)에 마련하다.

4월 초 문화학원 유화과에 입학하다. 입학 동기생은 평양 출신의 김병기, 가메야마 츠네코(龜山恒子, 1918-2010), 츠카모토 시젠(塚本自然) 등 총 10명이었다. 입학 당시 한국인으로는 박성규(朴性圭, 1910-1994)가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김종찬(金宗燦, 생몰년 미상)이 3학년, 이철이(李哲伊, 1909-1969)가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4월 경성 제2고보 미술교사 사토 쿠니오로부터 문화학원 입학에 대한 격려의 엽서를 받다.

1936

일본의 재야미술단체전이었던 《이과전(二科展)》에 출품하였으나 낙선되다. 입학 동기생 김병기가 문화학원을 휴학하다.

1937

3월 이전 거주지를 도쿄시 세타가야구 교도초 프렌드 하우스(東京市 世田ヶ谷區 經堂町 フレンドハウス)로 옮기다.

3월 13일 제7회 《독립미술협회전》(3.13-4.4, 도쿄부립미술관)에 유화작품 〈랩소디〉를 출품하여 데뷔하다. 러시아 구축주의 화가 류보프 포포바(Lyubov Popova, 1889-1924)의 무대세트 〈Le Cocu magnifique〉(1922)의 영향이 읽히는 이 작품에서 향후 화가로서 그가 평생에 걸쳐 견지했던 진취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태도가 예고되고 있다.

〈Le Cocu magnifique〉는 러시아 연극제작자, 연출가, 배우로서 비사실주의적인 연극 실험으로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아방가르드 연극이론을 펼친 메이에르 홀트(Vsevolod Yemilyevich Meyerhold, 1874-1940)가 연출한 크롬랭크(Fernand Crommelynck, 1885-1970)의 작품으로 매우 전위적이고 기념비적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독립미술협회(獨立美術協會)는 1930년 가을, 이과회(二科會) 소속 화가들 중 하야시 타케시(林武), 니기시 코타로(三岸好太郎) 등 아수파와 표현주의 계열 화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전위적 경향의 재야미술단체로서 한국인으로는 유영국 외에 구분웅, 김만형 등이 참가했다.

4월 문학수(文學洙, 1916-1988), 안기풍(安基豊, 1914-?), 제국미술학교를 다니던 이중섭(李仲燮, 1916-1956)이 학교 분규사태로 문화학원에 입학하다. 문화학원에는 이병규(李炳圭, 1901-1974), 김건중(金建中, 1917-1971), 이극전(李克全, 1920-2011) 등 한국인 학생들의 입학이 이어졌다.

7월 이전 거처를 도쿄 시바구 니시쿠보 토모에초 32 이마콘 맥(東京市 芝區 西久保 巴町 三二 今方)으로 옮기다.

7월 10일 제1회 《자유미술가협회전》(7.10-7.19, 일본미술협회: 도쿄 우에노)에 릴리프 〈작품 B〉를 출품하여 입선하다.

자유미술가협회는 추상적이고 전위적인 경향의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하게 적극적인 예술의지에 의해 전진하고자 하는 미술가의 대동단결에 의해 각자 예술의 자유로운 발전과 시대의 예술정신의 진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이다.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朗, 1906-1957), 무라이 마사나리(村井正誠, 1905-1999), 아바시 야쿠로(矢橋六郎, 1905-1988), 야마구치 가오루(山口薫, 1907-1968) 등의 신시대양화전, 신자연파협회, 난바다 다츠오키(難波田龍起, 1905-1997) 등의 포름, 오노사토 다시노부(小野里利信, 1912-1986)의 《흑색양화전》 같은 그룹들의 구성원들이 결성한 이 그룹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에게 문호를 열어 유채, 수채, 판화, 소묘, 콜라주, 오브제, 포토그램 등 7개 장르 작품을 공모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1930년대 말 군국화되어 가던 일본의 미술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1940년 7월 당국의 요구로 ‘자유’를 ‘창작’으로 바꾸어 미술창작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자 예술의 자유로운 발전’에서 ‘건전한 예술의 창작과 그 발전’으로 설립 목적까지 바꾸었는가 하면, 급기야 1943년 전시는 ‘일본민족의 번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창작과제를 내걸기에 이르는데, 일본적 세계관을 수렴하여 세계사적 창조자라는 의무감으로 영미를 격멸하고, 주체적 입장과 책임으로 세계의 신질서를 확립하고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백성들로 하여금 황은에 힘입게 하고자 한다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작가로는 김환기(1913-1974)가 회우로 출품하고 총 675점이 응모한 제1회전에 유영국을 비롯하여 문학수(1916-1988)와 주현이 출품하여 입선한 이래, 제2회전에서 유영국과 문학수가 나란히 자유미술가협회상을 수상하여 회우가 되었으며, 1941년에 김환기는 회우를 그만두었으며, 이중섭은 제7회전부터 출품을 그만두었으며, 이중섭은 1942년부터 이대향(李大郷)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회우로서, 1943년부터는 문학수와 더불어 회원으로 출품했다. 그 밖에도 1944년 이규상, 조우식, 박생광, 안기풍, 신경철, 송혜수, 배동신, 석수성, 곽인식 등이 출품하였다.

연말 N.B.G.(Neo Beaux-Arts Group) 양화동인 그룹 활동을 시작하다.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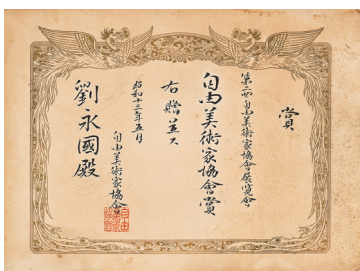
1월 26일 제2회 《N.B.G. 양화동인전》(1.26-1.28, 기노쿠니야화랑: 도쿄 긴자)에 〈제목 미상〉의 릴리프 오브제를 출품하다.

이후 1943년 여름에 귀국하기까지 자유미술가협회와 N.B.G. 양화동인 그룹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N.B.G.는 ‘Neo Beaux-Arts Groupe’의 약자이다. 1936년 유영국의 문화학원 동기생 가메야마 츠네코(區山恒子の 언니 가메야마 노시코(區山敏子), 나카이 야스유키(中井康之), 나가미 요타카(永見昶), 오카모토 데츠시로(岡本鐵四郎), 츠시모토 사사무(津志本貞) 등이 결성한 그룹이다. 처음부터 추상미술을



제11회 문화학원 미술과 졸업 기념사진(1938년)



제2회 자유미술가협회상 상정(1938년)



제5회 (N.B.G. 양화전) 설치 사진(기노쿠니아화랑)



제5회 (N.B.G. 양화전) 회원들(기노쿠니아화랑)

내세우며 1937년 말 시작한 이 그룹은 1938년과 1939년 각 3회씩 총 7회에 걸쳐 도쿄 긴자에 위치한 기노쿠니아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어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다. 문화학원 미술과 제10회 동기생들로 구성된 이 그룹에 예외적으로 한 해 후배인 유영국이 1938년 1월 열린 제2회 전시부터 가담하였으며 후에 '포플라의 집' 아파트에 살았던 세이노 가츠미(清野克己), 오가와 타다시(小川貞彦) 등이 추가되었다. N.B.G. 활동은 훗날 화가 유영국이 그룹운동을 예술세계를 펼치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게 되는 주요한 단초가 되었다. 1944년 제8회전까지 매년 1회 본 전시를 개최했으며 그 외에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등 타 지방에서도 전시를 여는가 하면, 1940년 제4회전은 경성 부민회관에서 순회전을 갖기도 했다.

3월 문화학원 미술과를 제11회로 졸업하다. 졸업동기로는 한중근(韓仲根), 라팁 사프타리타(Latip Saptarita, 1909-2002), 니시무라 소노(西村ソノ, 1918- ; 교장 니시무라 이사쿠의 딸), 가메야마 츠네코, 이시이 미후유(石井三冬; 교수 이시이 하쿠테이의 딸), 츠카모토 시젠 등이 있다. 무라이 마사나리가 문화학원 교수로 취임하다.

무라이 마사나리는 설립자 니시무라 이사쿠의 고향인 와카야마현의 출신으로서 문화학원 유휘과를 제1회로 졸업하고 파리에 유학한 일본 추상미술의 선구자로서 유영국과는 학교 선배로서 매우 절친한 관계였다.

4월 13일 제3회 (N.B.G. 양화전)(4.13-4.15, 기노쿠니아화랑: 도쿄 긴자)에 〈습작〉 등을 출품하다.

5월 이전 오모리구 아라이주쿠 4-1296 메카마이파트(大森區 新井宿 四ノ一二九六 目浦アパート)로 이사하다.

5월 22일 제2회 《자유미술가협회전》(5.22-5.31, 일본미술협회: 도쿄 우에노)에 〈작품 R2〉, 〈작품 R3〉, 〈작품 E1〉, 〈작품 G〉을 출품하여 자유미술가협회상을 수상하고 회우로 추대되다. 이때 자유미술가협회상은 유영국 외에 문학수도 함께 받았다. 자유미술가협회상 상금과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분으로 돈을 받아 라이카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다.

6월 이후 무라이 마사나리가 거주하는 도쿄만에 위치한 시나가와구 오오이 스키노모리의 아파트 아파트 '포플라의 집' (品川區 鈴野ヶ森 一九二八 ポプラの家)으로 거처를 옮기다. 이 아파트에는 무라이 외에도 여러 선배 동료 화가들이 거주하여 많은 예술가들과 폭넓게 교류하다.

9월 22일 제4회 《N.B.G. 양화전》(9.22-9.24, 기노쿠니아화랑: 도쿄 긴자)에 〈작품 LA-101〉 등을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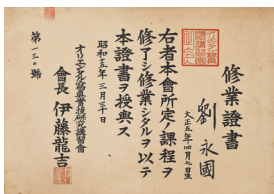
11월 22일 제5회 《N.B.G. 양화전》(11.22-11.25, 기노쿠니아화랑: 도쿄 긴자)에 〈역정(歷程) 2〉 등을 출품하다. 유영국의 삽화를 전람회 안내 엽서 표지화로 게재하다.

무라이 마사나리가 세타가야(世田谷區 玉川中町 1-6-12)에 아파트를 지어 '포플라의 집' 아파트에서 이사하다.

1939



도쿄 체류 시기 카메라를 메고 있는 유영국(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오리엔탈 사진실기강습회 수료증서
(1940년 3월 30일)



오리엔탈사진학교 졸업증서
(1940년 7월 6일)



무라이 마사나리
(그 배경으로 그의 1940년경 작품 〈9개의 상형(象形)〉이 보인다.)



도쿄 체류 시기 유영국과 무라이 마사나리 등

3월 27일 제6회 《N.B.G. 양화전》(3.27-3.29, 기노쿠니야화랑: 도쿄 긴자)에 〈계도(計圖) D〉 등의 작품을 출품하다.

5월 21일 제3회 《자유미술가협회전》(5.21-5.30, 일본미술협회: 도쿄 우에노)에 회우 자격으로 〈작품 1 (L24-39.5)〉, 〈작품 4 (L24-39.5)〉를 출품하다.

6월 15일 제3회 《자유미술가협회 오사카전》(6.15-6.21, 오사카시립미술관에 〈작품 1 (L24-39.5)〉, 〈작품 4 (L24-39.5)〉를 출품하다.

10월 19일 제7회 《N.B.G. 양화전》(10.19-10.24, 기노쿠니야화랑: 도쿄 긴자)이 열린다. 유영국이 출품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1930년대 후반 문화학원 졸업 후 한동안 신주쿠 등지의 댄스홀을 출입하며 탱고춤에 빠지기도 하고, 영국제 양복, 모자 등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옷차림을 즐기기도 했다.

1940

3월 30일 오리엔탈사진 실기강습회에 참가하여 과정을 수료하다. 매체로서 사진의 새로운 조형성을 모색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예술가로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편으로 사진현상소를 염두에 두다.

5월 22일 제4회 《자유미술가협회전》(5.22-5.31, 일본미술협회: 도쿄 우에노)이 '기원 2600년 기념'으로 열린다. 이 전시에 〈작품 404-A〉, 〈작품 404-B〉, 〈작품 404-C〉, 〈작품 404-D〉, 〈작품 404-E〉 등 총 5점을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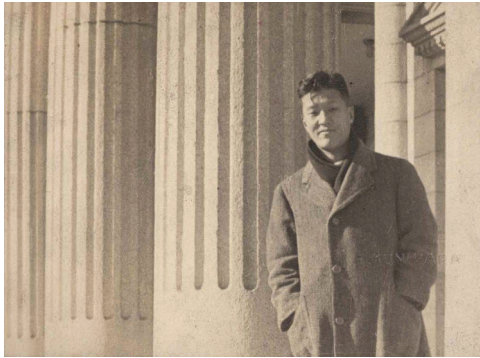
6월 15일 제4회 《자유미술가협회》 오사카 순회전이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오사카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회 개최에 맞춰 간행된 『자유미술』 제2호에 유영국의 작품 1점이 삽화로 게재되다.

7월 1일 제4회 《자유미술가협회전》 오사카 순회전이 종료되자마자 당국의 요구로 자유미술가협회 명칭이 미술창작가협회로 변경되다. 이미 여러 명의 회우들이 군에 징발되고 중일전쟁을 거쳐 군국주의의 길은 암운이 드리워진 가운데, '대동아 신질서 및 국방국가 건설'이라는 이슈 아래 태평양전쟁의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었던 터였다.

7월 6일 실기 강습회 수료에 이어 오리엔탈사진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다.

10월 12일 《미술창작가협회 경성전》(10.12-10.16, 부민회관 소강당: 경성)에 〈릴리프 1〉, 〈릴리프 2〉, 〈릴리프 3〉, 〈작품〉 등 총 4점을 출품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영국의 작품이 발표되고, 『조선일보』, 『문장』지 등의 신문 잡지에 진환, 길진섭, 김환기 등에 의해 소개되다.

1940년대



덕수궁 석조전 앞에 서 있는 유영국
(1940년대 초 추정, 오리엔탈사진학교 출신이며 유영국의 친구인 이범승이 촬영)



초카모토 시젠 이중촬영 기법으로 촬영된 유영국(1940년대)

1941

4월 10일 제5회 《미술창작가협회전》(4.10-10.21, 일본미술협회: 도쿄 우에노)에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등 총 9점을 출품하다.

1942

1월-3월 사이 경주 남산, 불국사 등 경주 일원을 답사하며 불상·불탑·고분·고건축 등을 소재로 사진을 촬영하다.

4월 4일 제6회 《미술창작가협회전》(4.4-4.12, 일본미술협회: 도쿄 우에노)에 경주 일원에서 찍은 사진 작품 〈사진 No. 1〉, 〈사진 No. 2〉, 〈사진 No. 3〉, 〈사진 No. 4〉, 〈사진 No. 5〉, 〈보도사진 6〉, 〈보도사진 7〉 등 총 7점을 출품하다.

1943

3월 25일 제7회 《미술창작가협회전》(3.25-4.2)이 개최되다. 유영국은 '창작과제'로 '일본민족 번영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내건 이 전시에 출품하지 않음으로써 8년 동안의 도쿄에서의 작품 활동이 정지되다.

4월 12일 문화학원 입학식 날 아침 문화학원의 설립자이자 교장인 니시무라 이사쿠(西村伊作, 1884-1963)가 '천황에 대한 불경죄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체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되다. 같은 해 10월 초순 징역 1년 형 판결을 받다.

8월 경 8년 여의 도쿄 유학생활과 작품 활동을 접고, 고향 울진(울진읍 82-13)으로 돌아오다. 그동안 제작한 100여 점이 훨씬 넘는 작품들 중 일부를 무라이 마사나리 아틀리에에 맡기고, 나머지 작품들을 배에 실어 가져오다.

8월 31일 유영국이 다니던 문화학원이 폐교 명령을 받아 일본 역사상 전후후무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폐교되어 육군참모본부 대모략선전방송용포로수용소로 사용되다.

귀국 후 붓을 잡고 부친이 운영하던 고기잡이배를 타다.

1944

11월 5일 서울 YMCA에서 김기순(金己順, 1920-)과 결혼식을 올리고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다.

울진에 살림을 차리다.



부인 김기순 여사(1945년, 평해 바닷가)

김기순은 황해도 사리원 출신으로 사리원중학교를 졸업했다.

1945

8월 17일 장녀 리지 태어나다.

유리지(劉里知, 1945~2013)는 금속공예가로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교수 및 치우금속공예관(현재 '유리지공예관')을 설립하고 관장을 역임하였다.

1946

8월 1일 부친 유문중 작고하다.



유영국과 김환기
(1940년대 후반 《신사실파전》 개최 무렵)

1947

연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으로부터 김환기를 통해 응용미술과 교수직을 제안 받다.

1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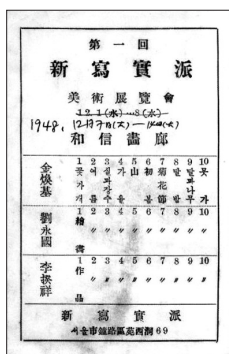
3월 울진에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서울로 올라오다.

4월 15일 서울대학교 미술부 교수로 부임하다.

4월 21일 차녀 자아(劉慈也, 1948-) 태어나다.

11월 5일 해방 이후 미술단체들이 좌우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자유전》에서 함께했던 김환기, 이규상(李揆祥, 1918~1964) 등 세명의 추상작가가 모여 대한민국 최초로 조형이념에 기초한 그룹으로 평가되는 신사실파를 결성하다.

12월 7일 《신사실파 창립전》(12.7~12.14, 화신화랑)이 개최되다. 〈회화 1〉, 〈회화 2〉, 〈회화 3〉, 〈회화 4〉, 〈회화 5〉, 〈회화 6〉, 〈회화 7〉, 〈회화 8〉, 〈회화 9〉, 〈회화 10〉 등 총 10점을 출품하다.



제1회 《신사실파 창립전》 리플릿(1948년)

1949

3월 경 서울 성동구 약수동 366-4 번지에 집을 구입하여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다.

9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으로 약칭)가 창설되어 출품을 권유받았으나, 그 구태의연한 형식이 식상하여 출품하지 않다.

11월 28일 제2회 《신사실파전》(11.28-12.3, 동화화랑)에 〈직선이 있는 구도 A〉, 〈직선이 있는 구도 B〉, 〈직선이 있는 구도 C〉, 〈직선이 있는 구도 D〉, 〈회화 A〉, 〈회화 B〉, 〈회화 C〉, 〈회화 D〉, 〈회화 E〉, 〈회화 F〉 등 총 10점을 출품하다.

12월 《국전》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어, 좌우로 분열된 미술계에 새로운 운동 동력을 불어 넣을 운동체로서 50년미술협회 결성을 진보적인 화가들과 더불어 논의하다.

1950

1월 5일 50년미술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50년미술협회는 “적극적인 예술정신에 의하여 전진코자 하는 진지한 미술가의 대동단결체로서 각자 예술의 자유로운 발전과 새로운 민족미술의 양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유영국을 비롯해 김환기, 최재덕(崔載德, 1916-), 이쾌대(李快大, 1913-1965), 장욱진, 남관(南寬, 1911-1990), 김만형(金晩炯, 1916-1984), 김병기, 김영주(金永周, 1920-1995), 송혜수(宋惠秀, 1913-2005), 진환(陳瀛, 1913-1951), 서강헌(徐康軒), 손응성(孫應星, 1916-1979), 이봉상(李鳳商, 1916-1970) 등 30대의 소장 작가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되었다.

2월 수묵·채색화가, 유화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현대미술상설전》(대원화랑)에 출품하다.

6월 중순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다(곧 이어 한국전쟁이 일어나 사직서는 서울 수복 후인 11월 20일자로 수리됨).

교수직 사퇴는 이미 미술부장 장발(張勃, 1901-2001)과 교내전 개최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데에 더해 《50년미술협회 창립전》 개최를 2주 남짓 앞두고, 50년미술협회와 교수직 중 택일 할 것을 요구한 데에 대한 결단이었다.

7월 1일 《50년미술협회 창립전》이 경복궁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무산되어 이를 위해 제작된 여러 점의 작품이 발표되지 못하다.

6월 25일-9월 28일 인민군의 서울 점령 기간.

리어카를 빌려 교외에서 장작을 패다 파는가 하면 물을 긷는 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여 가족 생계를 돌보다. 미술가동맹에 의해 명동극장에 차출되어 김일성, 스탈린 초상화 제작을 지시받으면서 추상화가라는 핑계를 대어 유영국은 복장을, 친구 장욱진은 넥타이를 분담하여 그리며 게으름을 피우다.

10월 30일 장남 진(劉晉, 1950-)이 태어나다.

1950년대

1951

1월 초 1·4 후퇴 시 가족과 함께 고향 울진으로 피난을 떠나다.

1월 말 생가로 피난하여 생활을 시작한 약 3주 경과 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부친 소유의 죽변 소재 양조장을 수리하여 운영에 착수하며 자립하다.

양조장은 원료 수급, 술 제조, 배달 등 고된 노동과, 철두철미한 품질 관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에 성공하여 관동 지방을 대표하는 양조장으로 우뚝섰다. 화가로서의 경험과 상상력도 한 몫하여 피난생활로 지친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절, 줄리앙 뒤비비에르(Julien Duvivier, 1896-1967) 감독의 영화제목에서 차용하여 소주 이름을 '망향(望鄕)'으로 붙여 인기를 끌었는가 하면, 스스로 모던하게 상표를 디자인해 눈길을 끌어 붉은색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받기도 했다.

1952

4월 맏딸 리지가 죽변국민학교(현 죽변초등학교)에 입학하다. 딸이 공부에 사용할 책상을 스스로 디자인하여 제작하는가 하면, 자신이 입던 양복을 뜯어 능숙한 바느질 솜씨로 딸의 코트를 짓는 등 딸에 대한 사랑을 제작적인 노고로 표현하다.

양조장 한 모퉁이의 작은방을 내어 화실로 사용하기 시작하다.

연말 화가 장욱진 등이 울진을 방문하다.

1953

2월 6일 차남 건(劉建, 1953-) 태어나다.

5월 16일 이경성(李慶成, 1919-2009)과 최순우(崔淳雨, 1916-1984)가 기획한 《현대미술작가 초대전》(5.16-5.28, 국립박물관: 부산)에 제2회 《신사실과전》 이후 약 2년 반 동안의 공백을 딛고 작품을 발표하다. 울진에 홀로 떨어져 화가로서 가졌던 고립감을 벗어나 부산에 피난하여 밀집해 있던 여러 화가들을 만나 회포를 풀다.

5월 26일 제3회 《신사실과 부산전》(5.26-6.4, 국립박물관: 부산)에 〈산맥〉, 〈나무〉, 〈해변에서 A〉, 〈해변에서 B〉 등 총 4점의 작품을 출품하다. 이 전시에는 창립회원 김환기, 이규상, 제2회부터 가담한 장욱진에 덧붙여 백영수와 이중섭이 추가로 합류하였다.

1954

1월 16일 환도하여 국립박물관이 주최하고 최순우가 기획한 《한국현대회화 특별전》(1.16-3.31, 국



아이들 진, 차녀 자야, 장녀 리지(1953년 경, 울진의 죽변 백사장에서)

립박물관: 남산)에 20여 명의 작가들과 더불어 출품하다.

6월 경 약수동 집에 세 들어 있던 의사 가족이 보관 중이던 일본 체류기의 작품들이 홍수로 물에 잠겨 유실되는 뼈아픈 일을 당하다.

이 때 유실된 작품은 100여 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라이 마사나리 아틀리에에 맡기고 온 작품 이외의 일본 체류기의 작품, 그리고 이에 덧붙여 두 차례의 《신사실파전》 출품작과 《50년미술협회전》 출품을 위해 제작된 것 등 공식적인 발표 기록을 남긴 작품들만으로도 그렇다. 게다가 기록되지 않은 작품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상에 보관되던 것을 반 지하층으로 옮겨 놓아 물에 잠기며 일어난 불상사로 제4회 《자유전》 출품 회화작품 2점과 제2회 《신사실파전》 출품작 1점 등 총 3점만이 가까스로 남게 되었다.

피난지 부산에서 먼저 서울로 돌아 온 화가 장욱진 가족이 서울 약수동의 유영국 집에 살기 시작하다.

1955

1월 장욱진의 부인 이순경이 회화동 로터리에 책가게를 열며 이사하다.

5월 양조장을 직접 경영하는 일을 접고, 서울 약수동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를 재개하다.

1942년 제6회 《자유전》을 끝으로 작품 발표를 멈춘 이후 1948년 제1회 《신사실파전》까지 그리고 한국 전쟁 발발로 그림그리기를 멈춰 1955년 5월 다시 붓을 들기까지를 그는 화가로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서울로 상경한 이후 구도자적 자세로 화업에 매진했다.

5월 말 그림 그리기에 복귀하자마자 기성 화단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다.

5월 21일 장발이 주동이 되어 대한미술협회를 탈퇴하여 한국미술가협회를 창립했다. 이어 5월 24일 대한미술협회는 이들을 제명했다. 이러한 화단 분규는 미학적인 논쟁과는 전혀 무관했다. 다만 부회장을 맡던 중 1951년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장발이 회장 선거 후보에서 발단이 되어 회장을 맡고 있던 고희동(高羲東, 1886-1965)이 탈퇴하는 가운데, 도상봉이 위원장을 맡게 되자 장발이 주동이 되어 한국미술가협회를 별도로 창립하는 등 세력 다툼 양상에 다름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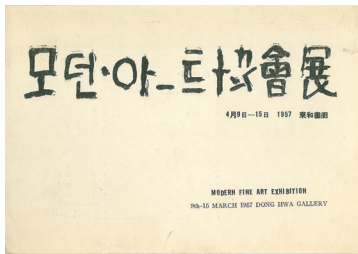
10월 대한미술협회에 입회하다.

11월 제4회 《국전》(11.1-11.30, 경복궁미술관)에 추천작가로 〈산 있는 그림〉을 출품하다.

1956

9월 이항성(李恒星, 1919-1997)이 『신미술』을 창간하며 자주 왕래하다.

10월 박고석(朴古石, 1917-2002), 이규상, 한묵(韓墨, 1914-2016), 황염수(黃廉秀, 1917-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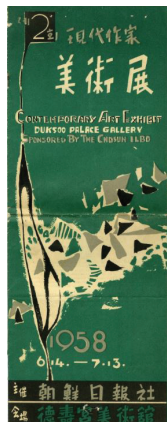
제1회 《모던아트협회전》 리플릿(1957년)



홍익대학교 재직시절 유영국(1950년대 후반)



제3회 《모던아트협회전》에서 유영국과 회우들
(1958년, 왼쪽부터 문신, 이규상, 유영국, 박고석, 한묵)



제2회 《현대작가초대전》 리플릿(1958년)

등과 모던아트협회를 창립하다.

“현대회화의 문제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그 회화운동의 전위체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모던아트협회 창립을 계기로 이어 창작미술협회, 현대미술가협회 등이 창립되며 한국 미술계에 그룹전 시대가 열리며 담보상태에 있던 미술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다.

11월 『신미술』 제2호, 「좌담회: 미술인의 당면과제」에 참여하여 현대미술, 전위, 외국문화 수용과 교류 등 미술계 현안 과제에 대하여 발언하다.

11월 제5회 《국전》 추천작가로 초대되었으나 출품을 거부하다.

1957

4월 9일 제1회 《모던아트협회전》(4.9-4.15, 동화화랑)에 《산맥》, 《산과 구름》, 《호수》, 《가을》, 《생선》, 《노을》, 《새》 등 총 7점을 출품하다.

10월 제5회에 이어 제6회 《국전》에 다시 추천작가로 초대되었으나 역시 출품을 거부하다.

11월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전임강사에 취임하다.

11월 『조선일보』 주최 제1회 《현대작가초대전》에 모던아트협회가 재야 작가단체로 초대되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출품하지 않고 협회전에 전념하기로 의견을 모으다.

11월 16일 제2회 《모던아트협회전》(11.16-11.22, 화신화랑)에 《계곡》, 《사람》, 《산》, 《해변》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이 전시부터 대구의 정점식(鄭暻植, 1917-2009)과 마산의 문신(文信, 1923-1995)이 신입회원으로 합류하다.

1958

3월 15일 《반공미술전》(3.15-4.15, 반공회관)에 초청작가로 출품하다.

3월 31일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전임강사를 퇴임하다.

6월 3일 제3회 《모던아트협회전》(6.3-6.9, 화신화랑)에 《산맥》, 《구름》, 《바다에서》, 《비(雨)》, 《나무》, 《언덕》 등 총 6점을 출품하다.

6월 14일 『조선일보』 주최 제2회 《현대작가초대전》(6.14-7.13, 덕수궁미술관)에 《산》, 《새》, 《아침》, 《Stream》, 《산수》 등 총 5점을 출품하다.

10월 제7회 《국전》에 다시 추천작가로 초대되었으나 거듭 출품을 거부하다.



캔버스 천을 손질하는 유영국과 차남 건(1950년대 후반, 약수동 자택)



유영국과 딸 리지(1950년대 후반, 약수동 자택)

11월 1일 제4회 《모던아트협회전》(11.1-11.8, 동화백화점 화랑)에 〈계곡〉, 〈노을〉, 〈산〉, 〈호수〉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이 전시부터 정규(鄭圭, 1923-1971), 김창억이 신입회원으로 합류하다.

《현대작가초대전》 참여 여부를 둘러싼 회원들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 전시를 끝으로 유영국은 자신이 주도하여 결성한 모던아트협회를 탈퇴하다. 그리고 현대미술운동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판단 아래 《현대작가초대전》에 주력하다.

1958년 무렵 명동에 위치한 서울화방과 초원다방에 자주 드나들다. 이 시기에 초원다방에 자주 드나든 화가들로는 도상봉, 이마동, 김인승(金仁承, 1910-2001), 이봉상, 한묵, 손응성, 유강열(劉康烈, 1920-1976), 김경승(金景承, 1915-1992), 최영림(崔榮林, 1916-1985), 천경자(千鏡子, 1924-2015), 문학진(文學晉, 1924-) 등이 있다.

1959

4월 24일 제3회 《현대작가초대전》(4.24-5.13, 경복궁미술관)에 〈지형〉, 〈단층〉, 〈계곡〉, 〈바다〉, 〈바다풀〉 등 총 5점을 출품하다.

9월 5일 『조선일보』 후원으로 서울 세종로 감리회관에 현대미술연구소를 열고 김병기, 한봉덕(韓奉德, 1924-1997)과 함께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다.

10월 제8회 《국전》에 추천작가로 초대되었으나 출품을 거부하다.

1960

3월 4일 제1회 《현대미술연구소습작전》(3.4-3.5, 감리회관 현대미술연구소)에 찬조 출품하다.

이 전시에는 방혜자(方惠子, 1937-), 권영숙(權寧淑, 1938-), 김옥녀, 황덕성, 표경국 등이 학생 자격으로 출품했다.

4월 11일 제4회 《현대작가초대전》(4.11-5.10, 경복궁미술관)의 조직을 주도하고, 〈영(嶺)〉, 〈숲〉, 〈바다〉, 〈해토(解土)〉, 〈산〉 등 총 5점을 출품하다.

6월 『사상계』 6월호 특집 「4월혁명화첩」에 작품 〈4월〉을 게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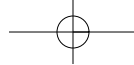
6월 3일 4·19혁명을 계기로 미술계 혁신을 모색하고자 대한미술협회가 20여 명의 미술인을 초청하여 개최한 미술인좌담회에 참가하다.

8월 23일 『조선일보』에 작품 〈산〉과 에세이를 게재하다.

10월 제9회 《국전》에 추천작가로 초대되었으나 다시 출품을 거부하다.



제4회 《현대작가초대전》 개막식에서 유영국(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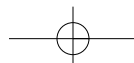
10월 무대윤리위원회에 위원으로 회의에 참가하다.

10월 60년현대미술가연합을 결성하여 대표를 맡아 국전 개혁, 현대미술관 건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9개 조항의 선언문을 발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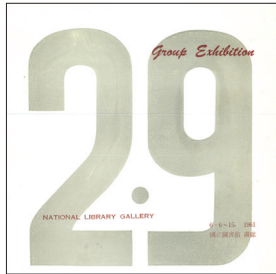
60년현대미술가연합은 4·19혁명 발발에도 불구하고, 제9회 《국전》이 개혁과 담을 쌓고 구태를 반복하자 미술계 혁신을 도모하고자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작가들이 모여 결성했다.

12월 현대미술연구소가 서울 세종로에서 명륜동으로 자리를 옮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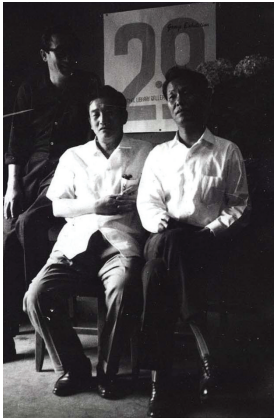
12월 14일 4월 민주혁명 순국학생위령탑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다.



1960년대



제1회 《2·9 동인전》 리플릿(19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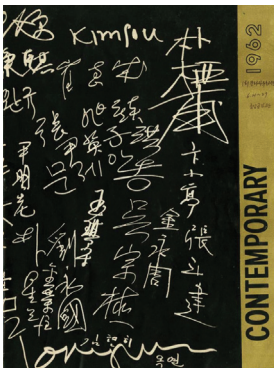
제1회 《2·9 동인전》 전시장
(이대원, 임완규, 유영국)



유영국과 장욱진
(1960년대, 가운데 유영국, 오른쪽 장욱진)



작업 중인 유영국(1960년대, 약수동 자택)



제1회 《세계문화자유회의초대전》 리플릿

1961

2월 2·9 동인회를 장욱진, 김창익, 임완규, 이대원, 권옥연 등 경성 제2고보 동문 6명이 모여 창립하다.

2·9 동인회는 경성 제2고보 재학시절 자유주의자 미술교사 사토 쿠니오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로 제2고보에서 '2'를, 사토 쿠니오(佐藤 九二男)의 이름에서 '9(九)'를 따와 '2·9'로 이름하였다.

4월 1일 제5회 《현대작가초대전》(4.1-4.23, 경복궁미술관)에 권옥연, 김영주, 이세득(李世得, 1921-2001), 홍종인(洪鍾仁, 1903-1998) 등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초대작가 자격으로 〈산〉을 출품하다.

4월 22일 국제자유문화연합회 주최 《국제자유미술 동경전》(4.22-5.7,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 미술관)에 출품하다. 도쿄 방문은 당국으로부터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무산되다.

6월 《파리국제청년작가비엔날레》 초청작가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다.

6월 6일 제1회 《2·9 동인전》(6.6-6.15, 국립도서관화랑)에 〈영(嶺)〉이라는 제목의 작품 총 4점을 출품하다.

6월 22일 5·16 군사쿠데타 정부가 6월 12일 공포한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미술단체 통합을 위한 합동 준비위원회에 현대미술가연합 준비위원으로 위촉되다.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불참하다. 두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다시 현대미술가연합측 실행위원으로 위촉되다.

9월 15일 현대미술연구소 개소 2주년을 기념하여 자축회와 습작전을 열다.

10월 17일 문교부에 의해 국전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추천작가모임에서 유화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다.

11월 이른바 '개혁 국전'으로 일컬어지는 제10회 《국전》(11.1-11.20)에 화가 권옥연, 김영주, 김흥수(金興洙, 1919-2004), 미술비평가 이경성, 방근택(方根澤, 1929-1992) 등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다. 작품 출품은 안 하다.

1962

6월 21일 제1회 《세계문화자유회의초대전》(6.21-6.27, 중앙공보관)에 〈구름〉, 〈산〉(1961-1962), 〈계곡〉(1962) 등 총 3점을 출품하다.

11월 '신상회'를 결성하다.

신상회는 제10회 《국전》이 '개혁 국전'이란 평판에도 불구하고, 제11회 《국전》에서 다시 복고적 양상을 보이자 유영국이 강록사(姜鹿史, 1934-), 김중휘(金鍾輝, 1928-2001), 김창익, 문우식(文友植, 1932-2010), 박석호(朴錫浩, 1919-1994), 이대원, 이봉상, 정문규(鄭文圭, 1934-), 임완규, 조병현(趙炳賢,



〈신상회 창립전〉리플릿

1921~2011), 한봉덕, 황규백(黃圭伯, 1932~) 등 중진 미술인들과 함께 만든 단체이다. 국가 문화정책 으로부터 미술계가 자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민간 후원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미술인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식의 신인공모전을 처음 시도하여 많은 신인들을 발굴했다.

11월 16일 《신상회 창립전》(11.16~11.25, 경북공미술관에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등 총 7점을 출품하다.

11월 27일 제2회 《2·9 동인전》(11.27~12.3, 국립도서관화랑)에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1963

4월 19일 제2회 《신상회전》(5.19~5.31, 경북공미술관에 〈구름〉, 〈산〉, 〈양지(陽地)〉, 〈눈〉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5월 6일 제2회 《세계문화자유초대전》(5.6~5.12, 중앙공보관화랑)에 〈산〉, 〈작품〉 등 총 2점을 출품하다.

6월 14일 제7회 《상파울로비엔날레출품작 한국전》(6.14~6.16, 국립공보관)에 작품 〈금〉, 〈산 1〉, 〈산 2〉 등 총 3점을 출품하다.

9월 28일 제7회 《상파울로비엔날레》(9.28~12.22, 브라질·상파울로)에 작품 〈금〉, 〈산 1〉, 〈산 2〉 등 총 3점을 출품하다.

12월 6일 제3회 《2·9 동인전》(12.6~12.11, 국립도서관화랑)에 작품을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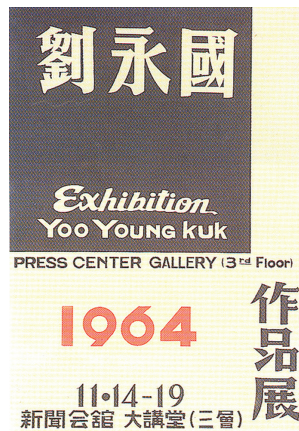
1964

6월 28일 제3회 《신상회전》(6.28~7.7, 경북공미술관에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이 전시를 끝으로 미술운동 차원의 일체의 그룹 활동을 중단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작업에만 몰입하기 시작하다.

10월 13일 『조선일보』가 기획한 「제13회 국전심사위에 이의 있다」 기사에 코멘트를 사양하다.

10월 18일 『조선일보』의 '네 전문가 지상 심포지움' 「국전론」에서, "현재 국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고루한 사실" 뿐이며, 그것은 "파벌적 심사위원 구성과 그에 따른 편파적 심사 때문이다." "심사위원에 젊은 작가들의 대폭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11월 14일 첫 《개인전》(11.14~11.19, 신문회관 특설화랑)을 개최하고,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작품 8〉, 〈작품 9〉, 〈작품 10〉, 〈작품 11〉, 〈작품 12〉, 〈작품 13〉, 〈작품 14〉, 〈작품 15〉 등 대작 총 15점을 출품하다.



유영국의 제회 〈개인전〉 포스터



유영국과 홍익대학교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



유영국과 홍익대학교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



유영국과 학생들



유영국과 제자들

첫 〈개인전〉에는 100호가 넘는 대작들로 구성되었다. 이 개인전은 그 진지성으로 한국 화단에 크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개인전은 유영국의 나이 49세 때의 일로 동료화가들에 비해 매우 늦은 일이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가 매번 한국미술사에 새로운 전기를 이룩한 그룹들을 결성하여 현대미술운동을 펼치는 데에만 몰입했던 데에 기인한다. 이 전시를 전환점으로 유영국은 일체의 그룹운동에서 뒤로 물러나 개인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작품세계에 몰입하여 매 2년을 주기로 개인전을 열었다.

12월 16일 제4회 〈2·9 동인전〉(12.16-12.20, 중앙공보관화랑)에 〈작품 A〉를 출품하다. 이 전시를 끝으로 동인 그룹전을 모두 접다.

1965

2월 김영주, 김중업(金重業, 1922-1988), 이경성, 최순우와 함께 제9회 《현대작가초대전》의 운영위원을 맡다.

2월 22일 《한국현대미술 7인전》(2.22-2.27, 신문회관)에 출품하다.

4월 17일 제9회 《현대작가초대전》(4.17-4.30, 경북궁미술관)에 초대작가로 작품을 출품하다.

11월 24일 《세계문화자유회의초대전》(11.24-11.20, 예총회관화랑)에 〈컴포지션 65-11〉 등 총 3점을 출품하다.

1966

4월 19일 《한국현대회화전》(4.19-4.29, 신세계 전시장)에 〈Work〉 총 2점을 출품하다.

5월 24일 제2회 《개인전》(5.24-5.29, 중앙공보관)에 〈림(林)〉, 〈곡(谷)〉, 〈정(頂)〉, 〈무(霧)〉 등 총 8점을 출품하다.

9월 4일 제10회 《현대작가초대전》(9.4-9.13, 경북궁미술관)에 〈양(陽)〉을 출품하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정교수로 부임하고 서양화과장을 맡다.

1967

8월 3일 제3회 《국제조형미술가협회전(ISPAA)》에 〈영(嶺)〉을 출품하다. 이 전시는 68년 3월부터 브라질 등지의 9개 미술관에서 순회 전시되다.

9월 1일 『중앙일보』 주최 제2회 《한국현대회화 10인전》(9.1-9.8, 신세계전시장)에 〈산〉 등을 출품하다.



《한국현대회화전》리플릿(1968년)



일본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주최 《한국현대회화전》에서 유영국과 참여 작가들

10월 1일 제16회 《국전》(10.1-10.30, 경북공미술관)에 추천작가로 《산》(1967)을 출품하다.

제9회 《일본국제미술전》(기간 미상, 도쿄: 196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에 출품하다.

1968

7월 19일 《한국현대회화전》(7.19-9.1, 도쿄국립근대미술관)에 《원 A》(1968), 《원 B》(1968), 《원 C》(1968), 《산 A》(1968), 《산 B》(1968) 등 총 5점을 출품하다. 한편, 1943년 유학에서 돌아 온 이후 25년 만에 처음 도쿄에 가 개막식 및 좌담회에 참석하다.

9월 10일 『중앙일보』 주최 제3회 《한국현대회화 10인전》(9.10-9.17, 신세계전시장)에 《산 東》, 《산 西》, 《산 南》 등 총 3점을 출품하다.

9월 28일 문화공보부에 의해 제17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다.

11월 11일 제3회 《개인전》(11.11-11.24, 신세계화랑)을 개최하고 《산 東》 1, 2, 3, 《산 西》 1, 2, 3, 《산 南》 1, 2, 3, 《산》 10, 11, 12, 13, 14, 《원》 1, 2, 3, 4 등 총 18점을 출품하다.

제17회 《국전》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산》을 출품하다.

1969

1월 이후-1971년까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주최《한국현대회화전》출품작들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 아시아국가 순회전을 하다.

6월 이탈리아 피스토이아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회화비엔날레》에 출품하다. 함께 출품한 작가는 박서보(朴栖甫, 1931-), 서세옥(徐世鈺, 1929-), 안동숙(安東淑, 1922-2016), 정창섭(丁昌燮, 1927-2011)이다.

11월 11일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출강하기 시작하여 1970년 2월 28일까지 강의하다.

제18회 《국전》에 초대작가로 《11-62》(1969)를 출품하다.

1970

3월 19일 《신세계초대작가전》(3.16-3.26, 신세계화랑)에 《작품》(30호 크기)을 출품하다.

6월 9일 『한국일보』 주최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6.9-7.9,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에 출품하다.

7월 25일 《한국현대유화전》(7.25-7.31, 신세계화랑)에 〈작품 A〉 2점, 〈작품 B〉 2점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8월 장남 유진과 울릉도 여행을 다녀오다.

11월 14일 제4회 《개인전》(11.14-11.20, 신세계화랑)에 〈산〉(1970) 20여 점을 출품하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직을 사임하다. 교수직 사임은 스튜디오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근무 일 수가 주당 3일에서 6일로 늘어남에 따라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작가적 판단이었다.

1970년대



국전 심사 후 동료들과 함께(1971년)



국전 심사 후 동료들과 함께
(1971년, 왼쪽부터 유영국 하나 건너 임완규, 하인두, 권옥연, 장우성)



화실에서 작업 중인 유영국(1970년대 중반)

1971

5월 2일 경북고등학교동창회 주최 《경북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동문미술전》(5.2-5.8, 문예회관)에 작품 2점을 출품하다.

6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간 『Modern Korean Painting 한국현대화집』에 〈산〉(1968, 137 x 137cm) 4점, 〈산〉(1970, 137 x 137cm) 1점 등 총 5점이 수록·간행되다.

9월 28일 제20회 《국전》운영위원회에 의해 서양화 비구상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다. 심사위원 자격으로 〈산〉을 출품하다.

1972

7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한국근대미술 60년전》(6.27-7.26,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의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산 A〉, 〈산 B〉 등 총 2점을 출품하다.

9월 제21회 《국전》서양화 비구상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다. 심사위원 자격으로 〈산〉(1972)을 출품하다.

1973

7월 5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한국현역화가 100인전》(7.5-8.4,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산 A〉(1972), 〈산 B〉(1972) 등 총 2점을 출품하다.

제22회 《국전》에 초대작가 자격으로 〈산〉(1973)을 출품하다.

1974

4월 13일 《산강화랑개관 1주년기념 초대전》(4.13-4.22, 대전산강화랑)에 〈산〉(1972) 등 총 5점을 출품하다.

5월 17일 《경희대학교개교25주년기념 현대한국대표작가미술전》(5.17-5.30, 경희미술관)에 〈산 1〉, 〈산 2〉를 출품하다.

1975

9월 1일 《공간미술대상협찬전》(9.1-9.7, 희화랑)에 〈작품〉을 출품하다.



11월 14일 제5회 《개인전》(11.14-11.22, 현대화랑)에 1972년부터 제작된 〈산〉(1974), 〈산〉(1975) 5점, 〈지붕〉(1974) 등 총 50여 점을 출품하다. 생애 처음으로 작품 1점을 판매하다.



약수동 화실(1976년 말-1977년 초 추정)

1976

4월 6일 제6회 《개인전》(4.6-4.11, 신세계미술관에 〈산〉, 〈산사〉 제목의 13 x 137cm 크기의 작품 7점, 135 x 135cm 크기의 작품 10점, 134 x 134cm 크기의 작품 14점, 162 x 135cm 크기의 작품 3점, 105 x 105cm 크기의 작품 7점 등 1971년부터 1975년 사이의 미 발표작 총 41 점을 출품하다.

6월 28일 《회화초대전》(6.28-7.7, 선화랑)에 출품하다.

11월 1일 《진우회(辰友會) 창립전》(11.1-11.7, 명동화랑)에 출품하다.

11월 24일 《이목화랑개관기념전 한국현대작가초대전》(11.24-12.8, 이목화랑)에 출품하다. 『한국일보』 주최 제7회 《한국미술대상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하다.

제25회 《국전》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산〉(1975)을 출품하다.

1977

2월 심근경색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다.

2월 16일 《신세계미술관 개축이동기념 서양화초대전》(2.16-2.27, 신세계미술관에 〈작품 A〉, 〈작품 B〉를 출품하다.

3월 14일 《한국현대서양화대전》(3.14-4.2,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산〉(1977, 135 x 135cm), 〈산〉(1977, 135 x 135cm) 등 총 2점을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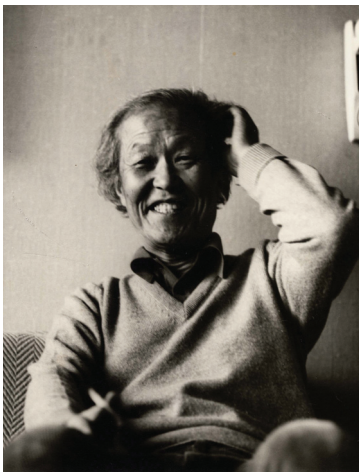
6월 21일 《6월 초대전》(6.21-6.30, 회화랑)에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10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심장 박동기 부착 수술을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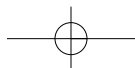
10월 21일 제7회 《개인전》(10.21-10.29, 진화랑)에 〈산〉 연작 총 36점을 출품하다.

11월 서울 등촌동에 새집을 짓기 위해 서울 중구 약수동에서 떠나 집을 임대하여 세 들다.

제26회 《국전》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산〉을 출품하다.



심근경색에서 회복한 후의 유영국(1970년대 후반, 약수동 화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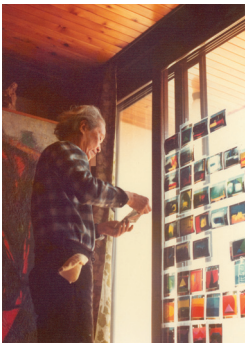
등촌동 자택



등촌동 자택 주변에서 사진 촬영 중인 유영국(등촌동 시절)



등촌동 자택에서 바라본 풍경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도판을 정리 중인 유영국. 등촌동 화실

《한국현대화가 10인전》(기간 미상, 유네스코화랑)에 출품하다.

1978

4월 27일 《살롱 드 메(Salon de Mai)》(4.27-5.21/5.27-6.25, La Galerie, Esplanade de la defense)에 출품하다.

5월 6개월 간 셋집 살이를 마감하고, 새로 지은 “겨울 아침 해 뜨는 풍경이 아름다운” 서울시 양천구 등촌동 186-1 번지 2층 양옥집으로 이사하여, ‘등촌동 시대’ 를 열다.

8월 12일 《서울갤러리 개관전》(8.12-8.21, 서울갤러리)에 <산사(山寺)>(1974), <산>(1976) 등 총 3점을 출품하다.

9월 23일 《신사실과 회고전》(9.23-9.30, 원화랑)에 <거리에서>, <바다에서>, <사람> 등을 출품하다.

제27회 《국전》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산>(1978)을 출품하다.

11월 3일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11.3-11.12,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바다>(1958)를 출품하다.

1979

4월 8일 『독서신문』 422호(4.8)에 <산>이 표지화로 실리다. 「형식의 절대적인 리얼리티, 유영국의 추상반세기」를 주제로 2주에 걸쳐 특집 기사가 게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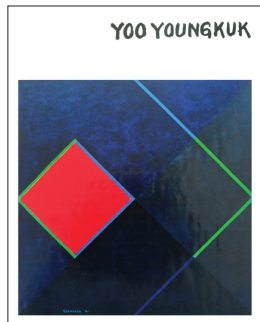
4월 15일 『독서신문』 423호(4.15)에 「형식의 절대적인 리얼리티, 유영국의 추상반세기 <하>」가 게재되다.

4월 24일 《예화랑 1주년개관기념전》(4.24-4.30, 예화랑)에 <Work>(1973)를 출품하다.

6월 4일 『중앙일보』 주최 제2회 《중앙미술대전》(6.4-6.17,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초대작가로 <물>을 출품하다.

6월 4일 『경향신문』 6월 4일자 5쪽에 「문화인 포스트: 한평생 추상세계추구로 국립미술관에 초대된 유영국 화백」 제목의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다.

6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유영국초대전》(6.20-7.3,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기념 도록 『YOO YOUNG-KUK』(대영문화사)이 김수근, 서세옥, 이경성, 이구열, 이세득, 최순우, 윤치오 등 추진위원회에 의해 발행되다. 1956년에서 1977년까지의 작품 109점이 수록되고, 미술비평가 오광수의 작품론과 연보가 게재되다.



(유영국초대전) 기념 도록 『YOO YOUNG-KUK』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유영국초대전)에서 유영국과 가족들
(장녀 리지, 유영국, 부인 김기순, 장남 진)

6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유영국초대전》(6.20-7.3,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장녀 유리지에 의해 재제작된 1930년대 후반의 초기 릴리프 작품들을 포함한 1977년까지의 작품들을 출품하다.

여름 『계간미술』 10호(1979년 여름) 33-48쪽에 미술비평가 이일의 「화가와 작품/ 유영국: 조형과 자연의 변증법」과 〈바다〉(1958, 101 x 101cm), 〈작품〉(1979, 135 x 135cm), 〈작품〉(1979, 105 x 105cm), 〈작품〉(1961, 194 x 136cm), 〈작품〉(1955, 73 x 60cm), 〈작품〉(1957, 100 x 100cm), 〈작품〉(1960, 128 x 95cm), 〈작품〉(1958, 102 x 102cm), 〈작품〉(1979, 135 x 135cm) 등 총 9점의 작품 도판이 게재되다.

9월 다리 골절상으로 가을부터 휠체어에 앉아 작업을 강행하다. 40호 크기 이하의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1980년 현대화랑 전시에 출품하다.

9월

월간지 『공간』(14권 9호) 33-50쪽에 「특집: 화가 유영국」이 게재되다. 작품 도판과 미술비평가 임영방의 「자연을 조형공간으로 내면화 시키려는 탐구와 노력」, 미술비평가 김인환의 「자연에의 근원적 결구와 내연」, 미술비평가 윤우학의 「자연에로의 독백」 등 총 3편의 유영국론이 게재되다.

9월 1일 《한국현대미술 50년대전》(9.1-9.14,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산〉(1960, 161 x 130cm), 〈바다에서〉(1957, 130 x 97cm), 〈산〉(1960, 161 x 130cm) 등 총 3점을 출품하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위촉되다.

제28회 《국전》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산〉을 출품하다.

9월 17일 제1회 《예술원미술분과회원작품전》(9.17-9.29, 예술원 전시실)에 〈산〉을 출품하다.

10월 12일 《서양화 5인초대전》(10.12-10.18, 예화랑)에 〈산〉(45.5 x 37.5cm), 〈산〉(61 x 45.5cm), 〈산〉(65 x 53cm), 〈산〉(41 x 32cm) 등 총 4점을 출품하다.

10월 18일

화랑협회 주최 《제1회 미술대전》(10.18-10.24, 문화화랑·선화랑)에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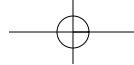
12월 23일 『독서신문』 458호(12.23)에 에세이 「생각하는 생활: 능선과 지붕선」을 게재하다.

12월 30일 『독서신문』 459호(12.30) 표지화로 작품 〈일모(日暮)〉가 실리다.

1980

3월 28일 《예화랑 개관2주년기념 현대서양화전》(3.28-4.3, 예화랑)에 〈산〉(1978, 45.5 x 63cm)을 출품하다.

4월 10일 《현대화랑 개관 10주년 기념전》(4.10-4.15, 현대화랑)에 출품하다.



제9회 《개인전》에서 유영국과 평론가 이경성

4월 12일 제19차 한국미술협회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되다.

여름 계간지 『화랑』 28호(1980년 여름) 3-15쪽에 특집 기사 「그 화가의 신작·유영국… 원숙의 서정성」이 게재되다. 신작 〈숲〉, 〈산과 강〉, 〈산〉, 〈황혼〉, 〈산과 강〉의 도판과 「화가의 말」, 「'이흥우'의 메모」가 게재되다.

9월 17일 제2회 《예술원미술분과회원작품전》(9.17-9.27, 예술원전시실)에 〈작품〉 총 3점을 출품하다.

10월 3일 제1회 《한국현대미술대전》(10.4-10.12, 경기도 용인군 명성킨트리클럽하우스)에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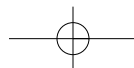
10월 7일 제9회 《개인전》(10.7-10.13, 현대화랑)에 등촌동에서 제작한 3년간의 작품 가운데 아침 해와 노을, 동산의 나무 등을 소재로 한 작품 30여점을 출품하다.

11월 24일

제2회 《한국화랑협회전》(11.24-11.30, 현대화랑·희화랑) 소장품전에 작품이 출품되다.

12월 『공간』지 15권 12호(1980.12) 38-41쪽에 미술비평가 이경성의 작가론 「자연과 나누는 독특한 대화: 유영국론, 1980년의 유영국전을 계기로」가 게재되다.

12월 16일 《한국서양화원로중진작가선전》(12.16-12.31, 롯데화랑)에 출품하다.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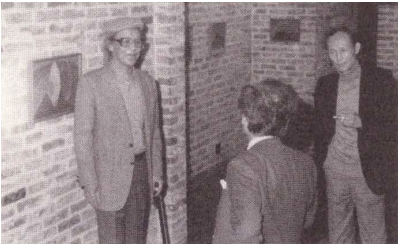
등촌동 자택



작업 중인 유영국(1980년대, 등촌동 화실)



제3회 《예술원미술분과회원작품전》에서 유영국과 동료들



제10회 《개인전》이 열린 공간화랑에서 유영국과 평론가 이일

1981

4월 17일 《한국미술 81 전》(4.17-5.7,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출품하다.

4월 22일 《서울신문 초대 81 전》(4.22-4.27, 롯데화랑)에 출품하다.

5월 2일 경북고등학교동창회 주최 《경북인미술전》(5.2-5.8, 경북고등학교미술관)에 《산》을 출품하다.

12월 7일 제3회 《예술원미술분과회원작품전》(12.7-12.13, 현대화랑)에 《작품 1》을 출품하다.

겨울 계간지 『선미술』 겨울호 잡지 표지화로 1981년 작품이 게재되고, 6-17쪽에 1956, 1979, 1964, 1976년 유화 작품 4점의 도판과 미술비평가 유홍준의 「유영국-추상세계의 다양한 편력」이 게재되다.

1982

3월 『공간』지 17권 3호(1982.03) 28-35쪽에 미술비평가 김인환의 「유영국, 순수추상에의 지향이 있기까지」가 게재되다.

3월 24일 《선미술 창간3주년기념 중진작가관화11인전》(3.24-4.5, 선화랑)에 《세리그래프》(1982, 37 x 41cm)를 출품하다.

4월 10일 《현대화랑 11주년개관 기념전》(4.10-4.16, 현대화랑)에 출품하다.

4월 15일 제10회 《개인전》(4.15-4.20, 공간화랑)에 1957-1982년 사이의 소품 총 26점을 출품하다.

4월 21일 《서울신문 초대 82전》(4.21-4.26, 롯데화랑)에 출품하다.

4월 27일 《현대서양화전》(4.27-5.3, 예화랑)에 출품하다.

5월 20일 『한국현대미술대표작가선집 1권-유영국』(금성출판사)이 발간되다. 미술비평가 오광수의 「유영국의 예술-구성적 화면과 교류하는 자연」이 게재되다.

6월 28일 《국제화랑 개관기념 10인전》(6.28-7.10, 국제화랑)에 《산》(15호 크기)을 출품하다.

《살롱 도톤느(Salon d'Automne)전》(기간 미상, Chateau de Luneville)에 초대되어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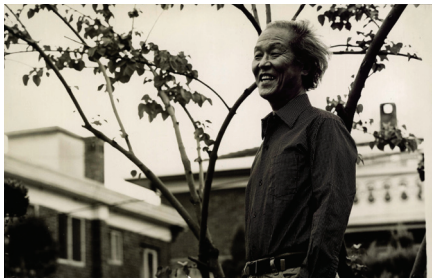
10월 19일 진화랑 개관 10주년 기념 《오늘의 회화전》(10.19-10.29, 진화랑)에 《산》을 출품하다.

10월 20일 제14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수상하다.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회화Ⅱ-양화분과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미술본상 수상식장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유영국(1982년, 등촌동 자택 마당)



등촌동 자택(1983년)

11월 12일 제4회 《예술원미술분과회원작품전》(11.12-11.18, 현대화랑)에 〈작품 B〉를 출품하다.

부인 김기순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다.

12월 24일 한국미술협화와 문예진흥원 주관 《독립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 미술전》(12.24-12.29,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 출품하다.

1983

1월 12일 《한국현대미술전》(1.18-2.13, 이태리·밀라노 비스콘티홀)에 〈Work〉(1971)을 출품하다. 전시 개막 참석차 부부 동반으로 이태리 밀라노, 파리 등 유럽을 여행하고 2월 8일 귀국하다.

3월 1일 《83현대미술초대전》(3.1-3.3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양화 부문 초대작가로 출품하다.

3월 25일 《미화랑 이전개관기념 양화·한국화중진작가 23인작가전》(3.25-4.2, 미화랑)에 출품하다.

4월 12일 제11회 《개인전》(4.12-4.17, 신세계미술관)을 개최하다.

4월 15일 《선미술 창간 4주년 기념 특집작가 서양화 9인전》(4.15-4.20, 선화랑)에 출품하다.

9월 1일 《화랑 지 10주년 소품기념전》(9.1-9.3, 현대화랑)에 출품하다.

9월 5일 《유영국·올리비에 드브르(Olivier Debre) 초대 2인전》(9.5-9.24, 주한불란서문화원에 작품 총 5점을 출품하다.

11월 26일 《서울미술관 개관2주년기념전》(11.26-12.23, 서울미술관)에 작품을 출품하다.

1984

2월 21일 《1984 신춘 서양화10인전》(2.21-2.28, 현대화랑)에 〈작품〉(1983, 105 x 105cm)을 출품하다.

5월 18일 《84 현대미술초대전》(5.18-6.17,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초대작가 선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작품〉(1983, 99 x 79cm)을 출품하다.

6월 7일 《국제화랑 개관2주년기념 서양화4인전》(6.7-6.13, 국제화랑)에 〈작품〉(1982, 60 x 49), 〈작품〉(1982, 72 x 60cm)을 출품하다.

6월 8일 《진우회전》(6.8-6.16, 선화랑)에 〈작품〉을 출품하다.

6월 12일 《가나화랑 이전개관기념전》(6.12-6.19, 가나화랑)에 〈산〉(1980, 40 x 52cm)을 출품하다.

10월 18일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하다.

11월 24일 《예술원 회원작품전》(11.24-11.30, 백악미술관)에 출품하다.

11월 28일 《국제화랑 이전개관기념 서양화8인전》(11.28-12.5, 국제화랑)에 〈산〉(1984, 133 x 92cm)을 출품하다.

12월 5일 《한국근대미술자료전》(12.5-12.3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다.

1985

2월 22일 현대화랑 개관 15주년 기념 《서양화 7인전》(2.22-2.28, 현대화랑)에 작품 총 5점을 출품하다.

2월 23일 《한국서양화신구작가전》(2.23-2.28, 가나화랑)에 〈산〉(1961), 〈산〉(1980)을 출품하다.

3월 8일 예화랑 개관 7주년 기념전 《오늘의 서양화전》(3.8-3.15, 예화랑)에 출품하다.

5월 18일 《85현대미술초대전》(5.18-6.16,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출품하다.

10월 4일 광복40주년기념 《현대미술 40년전》(10.4-10.18,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인 〈산〉(1962)을 전시하다.



사진을 찍는 유영국(1980년대)

1986

8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개관기념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8.26-10.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산〉(1962, 182 x 227cm)을 출품하다.

강석경의 대담집 『일하는 예술가들: 강석경의 인간 탐구』(열화당, 1986) 91-106쪽에 게재되다.

1987

3월 2일 《4주년 개관기념전》(3.2-3.29, 가나화랑)에 〈산〉 2점을 출품하다.

5월 23일 《87 현대미술초대전》(5.23-6.2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작품〉(1987, 134 x 134cm)을 출품하다.

6월 건축을 전공한 차남 건이 설계하여 신축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34번지로 거주지와 작업실을 옮기다.

8월 24일 《서울미술대전》(8.24-9.13,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3년 전에 시작하여 마감한 100호 규모의 신작을 출품하다.

10월 16일 제9회 《예술원미술분과회원작품전》(10.16-10.22, 예술원미술관)에 〈작품 1〉을 출품하다.

1988

8월 17일 88올림픽기념 《세계현대미술제》(8.17-10.5,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무제〉(1968) 5점과 신작 〈무제〉(1987) 1점 등 총 6점을 출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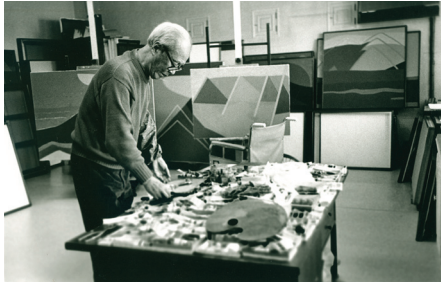
1989

8월 21일 제5회 《서울미술대전》(8.21-9.20, 서울시립미술관)에 〈산〉을 출품하다.

1990

8월 2일 《90 현대미술초대전》(8.2-8.3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작품〉(1990, 194 x 130cm)을 출품하다.

1990년대



작업 중인 유영국(1990년대, 방배동 화실)



휠체어 작업 중인 유영국(1990년대, 방배동 화실)

1991

3월 15일 《현대미술 25인전》(3.15-3.30, 현대화랑)에 〈무제〉(1971) 총 2점을 출품하다.

5월 14일 《한국근대회화 7인전》(5.14-5.26, 현대백화점미술관)에 〈작품 A〉, 〈작품 B〉, 〈작품 C〉를 출품하다.

5월 15일 차미례의 『미술 에세이』(문이당, 1991)에 「서양화가 유영국 〈나무〉」가 게재되다.

6월 1일 제1회 《경북동문미술전》(6.1-6.8, 가나화랑)에 〈산〉(1989), 〈산〉(1991)을 출품하다.

1992

《소장자가작품 특별 순회전》(9.19-10.9, 대구문화예술회관·강릉문화예술관)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품이 전시되다.

《제14회 예술원 미술분과회원전》(10.8-10.25, 예술원미술관)에 작품을 출품하다.

1993

3월 22일 《현대미술의 기호와 형상전》(3.22-3.30, 현대화랑)에 〈작품〉(1970) 총 2점을 출품하다.

가을 『가나아트』 통권 33호(1993.9/10) 126-129쪽에 신지희 기자와의 대담 「원로작가탐방 ① 유영국: 나이마저 손 든 영원한 프로」가 게재되다.

1994

4월 25일 유근준의 『미술가와 함께』(에천문화사, 1994) 45-47쪽에 「유영국과 “자연”」이 게재되다.

12월 16일 《서울국제현대미술제》(12.16-1995.1.1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출품하다.

1995

4월 12일 제12회 《개인전》(4.12-4.26, 갤러리현대)에 1965년에서 1990년까지의 작품, 〈무제〉(1965), 〈무제〉(1965), 〈무제〉(1968), 〈무제〉(1969), 〈무제〉(1971), 〈산〉(1973), 〈무제〉(1975), 〈무제〉(1984) 등을 출품하다.



호암갤러리·중앙일보사 주최 제13회 개인전 《유영국-한국 추상회화의 정신전》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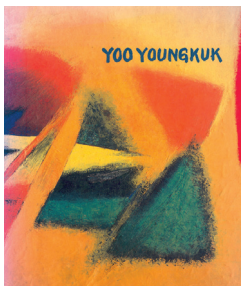
제13회 《개인전》 개막식에서 유영국과 화가 이대원



제13회 《개인전》 개막식에서 유영국과 미술평론가 이일



제13회 《개인전》 개막식에서 유영국과 홍라희 관장



제13회 개인전 《유영국-한국 추상회화의 정신전》 카탈로그



이인범 저 『유영국과 초기 추상』

1996

6월 12일 제27회 《바젤(Basel) 아트페어》(6.12-6.17, 스위스·바젤국제전시장)에 《산》 시리즈 총 2점을 출품하다.

10월 16일 『중앙일보』 주최 《유영국-한국 추상회화의 정신전》(10.16-11.24, 호암갤러리)에 초기부터 1990년대까지 제작된 작품 60여 점을 출품하여 제13회 《개인전》을 열다. 도록 『YOO YOUNGKUK』이 삼성문화재단, 『중앙일보』에서 발행되다.

10월 19일 윤명로 저 『모더니스트들의 도전과 환상』(도서출판 가나아트)에 유영국 작품론이 게재되다.

1997

도록 『YOO YOUNGKUK』(미술과 삶)이 발행되다. 미술비평가 이경성의 「한국 추상미술의 거목, 유영국론」, 정병관의 「중용의 미학」이 게재되다.

1998

10월 14일 제14회 《개인전》(10.13-10.23, 갤러리현대)에 작품 약 40점을 출품하다.

1999

2월 14일 관동대학교에 의해 명예철학박사학위가 수여되다.

4월 10일 《동아시아 회화의 근대-유화의 탄생과 그 전개》(4.10-5.23, 일본 시즈오카시립미술관 외 4개 미술관에 <10-7>(1940), <작품>(1940) 등 총 2점을 출품하다.

10월 『월간미술』 8권 10호(10월호) 58-71쪽에 미술부 기자 박정기 「원로가 증언하는 20세기 한국 미술-추상회화의 외길 60년」, 미술 비평가 이경성 「원로가 증언하는 20세기 한국미술 -유영국-원로 평론가 이경성 대담」 등 두 편의 인터뷰가 게재되다.

10월 11일 제21회 《예술원미술전》(10.11-10.31, 예술원미술관에 절필작 <작품>(1999)을 출품하다.

2000

4월 7일 《갤러리현대개관 30주년기념전》(4.7-4.25, 갤러리현대)에 《산》 3점을 출품하다.

12월 29일 이인범 저 『유영국과 초기 추상』(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이 발행되다.

2000년대



마지막 제15회 개인전 《유영국-한국추상미술의 기원과 정점전》에서 유영국과 장녀 리지, 차남 건



영결식상 전경(삼성서울병원)



영결식에서 화가 이대원의 조사 낭독



영결식에 참석한 조문객들
(추도사를 한 비평가 오광수, 화가 오승우 등)



장지의 추모객들(장녀 리지에 의해 제작된 묘소의 돌레석이 눈에 띈다.)

2001

9월 26일 《한국현대미술의 전개전》(9.26-10.7, 갤러리현대)에 출품하다.

2002

3월 15일 『중앙일보』 주최 《격조와 해학: 근대의 한국미술전》(3.1-5.12, 호암갤러리)에 출품하다.

4월 17일 《한국 근대회화100선전》(4.17-6.3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산〉(1959)을 출품하다.

5월 17일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전-한민족의 빛과 색전》(5.17-7.5,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을 출품하다.

8월 30일 《유영국-한국추상미술의 기원과 정점전》(8.30-10.6, 가나아트센터)에 작품 50여 점을 출품하여 제15회 《개인전》을 열다.

9월 14일 《유영국-한국추상미술의 기원과 정점전》 기념 학술세미나 '유영국, 한국 추상미술 해석의 쟁점' 이 이인범 발제, 김병기, 이구열 증언 및 좌담, 김영나 사회로 가나아트센터 아카데미 홀에서 개최되다.

11월 11일 오후 8시 서울대병원에서 지병인 심장병으로 투병 중 작고하다.

11월 13일 오전 9시 삼성서울병원에서 김병기, 황염수, 이대원, 권옥연, 문학진, 최종태, 오광수, 김인환 등 지인과 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산 58번지에 묻히다.

작고 후



「유영국 저널」 창간호

2003

5월 12일 재단법인 유영국미술문화재단이 설립되다.(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2-34, 이사장: 윤명로, 이사: 김종량, 서용선, 서희석, 유건, 유진, 이인범, 최종태, 홍석현, 감사: 홍정희, 노일봉)

6월 3일 유진 이사가 사퇴하고 오광수 이사 취임하다.

11월 5일 유영국미술문화재단·갤러리현대 주최 《유영국 1주기전》(11.5-11.23, 갤러리현대)이 열리고 사진, 릴리프, 회화 작품 등 총 43점이 출품되다.

12월 23일 《빛과 색채의 탐험전》(12.23-2004.2.15,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 〈Work〉(1967), 〈Work〉(1969), 〈Work〉(1969)가 출품되다.

2004

5월 21일

《Forever Red전》(5.21-6.20, 가나아트센터)에 〈원 A〉(1968), 〈Work〉(1964)가 출품되다.

9월 24일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50주년 기념 미술전》(9.24-10.17: 서울/11.2-11.16: 광주, 서울 덕수궁미술관/광주광역시립미술관)에 〈작품 1〉(1993)이 출품되다.

11월 11일 『유영국 저널』이 창간되다. 이후 2017년까지 총 9집이 발간되다.

묘지(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산 59-1, 산 58번지)에 화비(畫碑)가 세워지다. 화비에는 화가의 예술관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유영국의 말이 새겨졌다.

2005

6월 28일 《갤러리 미 이전개관 기념전》(6.28-7.18, 갤러리 미)에 〈Work〉, 〈산〉 등 총 2점의 작품이 출품되다.

8월 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주관으로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2005.8.4-2006.2.28, 총괄책임연구원: 이인범)에 착수하다.

8월 13일 《한국미술100년전》(8.13-10.23,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작품 LA101〉(2003년 유리지 재제작), 〈작품 1 (L24-39.5)〉(1979년 유리지 재제작), 〈작품 404-D〉(1979년 유리지 재제작), 〈Work〉 등 총 4점의 작품이 출품되다.

8월 24일 《오지호·유영국 2인전》(8.24-9.11, 광주 신세계갤러리)에 총 10점의 작품이 출품되다.

9월 30일 《한국현대미술전》(9.30-11.27, 부산시립미술관)에 총 6점의 작품이 출품되다.

10월 26일 유영국 화백의 드로잉 60점을 수록한 『유영국 전작 드로잉집』(유영국미술문화재단)이 발행되다.

11월 4일 《유영국 3주기전- 유영국 드로잉전》(11.4-11.27, 가나아트센터)이 열린다.
유영국의 드로잉 중 15점을 선별하여 수록한 『유영국 드로잉집』(유영국문화재단)이 350부 한정판으로 발간되다.

11월 5일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주최, 한국미술이론학회 주관으로 심포지엄: 〈한국의 초기 추상미술〉이 국민대학교에서 열린다.

11월 11일 『유영국저널』 제2집이 발간되다.

학회지 『미술이론과 현장』 제2호 출판지원금을 지원하다

2006

5월 4일 《한국 현대미술의 위대한 거장전》(5.4-5.23, 예화랑)에 〈Work〉(1975), 〈Work〉(1994)가 출판되다.

6월 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주관으로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2006년도 예술부문〉(6.2-11.30, 총괄책임연구원: 이인범)에 착수하다.

6월 7일 《서울대학교미술관 개관전-현대미술로의 초대》(6.7-7.21, 서울대학교미술관)에 〈Work〉(1988)이 출판되다.

9월 20일 《대학과 미술-미술교육 60년》(9.20-10.31, 서울대학교미술관)에 〈Work〉(1949)가 출판되다.

11월 11일 『유영국저널』 제3집이 발간되다.

2007

4월 1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주관으로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2007년도 예술부문〉(4.16-12.15, 총괄책임연구원: 이인범)에 착수하다.

7월 18일 《아트블루 선정: 한국근현대작가120인전》(7.18-7.31, 인사아트센터)에 〈Work〉가 출판되다.

9월 6일 《한국근현대명품전》(9.6-9.30, 가나아트 부산)에 〈Work〉 2점이 출판되다.

11월 11일 『유영국저널』 제4집이 발간되다.

11월 29일 《신사실과 창립 60주년 기념전-리얼리티의 성좌전》(2007.11.9-2008.1.13, 환기미술관)

에 김환기, 이규상, 장욱진, 백영수, 이중섭과 함께 전시되다.

학회지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18집 출판지원금을 지원하다.

2008

1월 12일 유영국문화재단 주최 《신사실파 창립 60주년 기념전-리얼리티의 성좌》 개최 기념 학술세미나 ‘신사실파, 리얼리티의 성좌’가 사회 권행가, 발제에 오광수, 백영수, 이인범, 최열, 박미정, 김주원, 강병직, 토론에 김영순, 이영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명대학교에서 열린다.

1월 13일 이인범 편저 『한국 최초의 순수 화가동인 신사실파』(도서출판 미술문화)가 《신사실파 창립 60주년 기념전- 리얼리티의 성좌》전 개최 기념으로 발행되다.

8월 4일 《한국 드로잉 100년전》(4.4-6.1, 소마미술관)에 〈릴리프 오브제〉(1937)(2003 유리지 재제작), 〈릴리프 오브제〉(1938)(2003 유리지 재제작), 〈드로잉〉(1957), 〈드로잉〉(1958 추정)이 출품되다.

11월 11일 『유영국저널』 제5집이 발간되다.

12월 23일 《한국 근대미술 걸작선: 근대를 묻다》전(12.23-2009.3.22.,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출품되다.

2009

9월 18일 《모던 보이, 모던 걸-한국미술의 초기 모더니즘과 모더니티 규명전》(9.18-9.22, KIAF 전시장)에 〈Work〉(2002 유리지 재제작), 〈Work〉(2002 유리지 재제작), 〈Work〉 2점, 드로잉 2점 등 총 7점이 출품되다.

10월 12일 《색에서 색으로전》(10.12-12.2,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Work〉, 〈산〉 등 총 2점이 출품되다.

11월 11일 『유영국저널』 제6집이 발간되다.

12월 정하윤의 「유영국(劉永國, 1916-2002) 회화 연구: 동·서양의 예술관을 통한 서양미술의 수용」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되다.

2010

2월 유영아의 「유영국(劉永國, 1916-2002)의 초기 추상 연구: 일본 유학기 구성주의의 영향을 중심

으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되다.

9월 9일 《이상 100년 특별전, 이씨의 출발》(9.17-10.17, 아르코미술관)에 〈Work〉(2002 유리지 재제작), 〈Work〉(2002 유리지 재제작), 〈작품 4(L24-39.5)〉(1979 유리지 재제작), 〈작품(LA101)〉, 〈랩 소디〉 1937년 엽서본, 〈작품 B〉 1937년 엽서본이 출품되다.

11월 11일

《유영국의 1950년대와 1세대 모더니스트들》(11.11-12.5, 가나아트센터)에 〈작품 4(L24-39.5)〉(1939/1979 유리지 재제작), 〈Work〉(1940), 〈Work〉(1940), 〈작품 404-D〉(1940/1979 유리지 재제작), 〈직선이 있는 구도〉(1949), 〈제목미상〉(1953 추정), 〈제목미상〉(1953), 〈제목미상〉(1953), 〈제목미상〉(1953), 〈제목미상〉(1953), 〈무제〉(1956), 〈도사〉(1955), 〈물고기〉(1956), 〈산〉(1957), 〈Work〉(1957), 〈Work〉(1958), 〈원 C〉(1968), 〈Work〉(1980), 〈나무〉(1957), 〈원 A〉(1968), 〈Work〉(1981), 〈무제〉(1956), 〈새〉(1956), 〈해변〉(1957), 〈바다에서〉(1957), 〈무제〉(1959), 〈무제〉(1966), 〈무제〉(1967) 등 28점이 출품되다.

11월 11일 『유영국저널』 제7집이 발간되다.

미술사학연구회 학회지 『미술사학보』 제34집 출판지원금을 지원하다.

2011

3월 17일 삼성미술관 LEEUM 주최 《코리안 랩소디-역사와 기억의 몽타주전》(3.7-8.1, 삼성미술관 LEEUM) 릴리프 〈R3〉(1979 유리지 재제작), 〈R4(L24-39.5)〉(1979 유리지 재제작) 등 총 2점이 출품되다.

5월 18일 《유영국 10주기전》(5.18-6.17, 갤러리현대)에 〈Work〉(1940) 외 총 45점이 출품되다.

10월 20일 《한국미술 100년전》(10.20-11.21, AKL Gallery (주)암웨이)에 〈Work〉(1973)가 출품되다.

12월 14일 서울시립미술관 주최 《현대미술의 지평전》(12.7-12.24,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 작품 3점이 출품되다.

2012

1월 10일 서울대학교미술관 주최 《교과서 속 우리미술전》(1.10-2.3, 서울대학교미술관)에 〈Work〉(1970)가 출품되다.

4월 28일 부산시립미술관 주최 《한국 자연풍경》(4.28-7.8, 부산시립미술관)에 김환기, 이대원, 박고석과 함께 전시되다.

5월 7일 화집 『Yoo Youngkuk』이 유영국미술문화재단, 갤러리현대, 마로니에복스 기획으로 마로니



오광수 저 『유영국-삶과 창조의 지평』

에 북스에서 발행된다.

5월 11일 『유영국 화집: The most beloved painter in Korea_Yoo Youngkuk』(유영국미술문화재단) 발행된다.

5월 17일 오광수 저 『유영국-삶과 창조의 지평』(마로니에북스)이 발행된다.

5월 31일 포항시립미술관 주최 《영남의 추상미술전》(5.31-7.29, 포항시립미술관)에 〈직선이 있는 구도〉, 〈물고기/언덕〉, 〈Work〉외 3점을 포함 총 6점이 출품된다.

6월 6일 광주시립미술관 주최 《두개의 모더니즘전》(6.6-8.19, 광주시립미술관)에 〈산(지형)〉(1959)이 출품된다.

8월 29일 서울미술관 주최 《서울미술관 개관전》(8.29-11.21, 서울미술관)에 〈산〉(1957)이 출품된다.

9월 20일 《판화로 만나는 한국미술의 명작전》(9.20-10.21, AK Gallery)에 유화 작품 〈산〉(1984)이 출품된다.

10월 11일 예술원미술관 주최 제33회 《대한민국예술원미술전》(10.11-10.31, 예술원미술관) 〈Work I〉이 출품된다.

11월 11일 『유영국저널』 제8집이 발간된다.

2013

2월 18일 공예가인 장녀 유리지가 작고하여 묘지(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걸은리 산 58번지) 앞에 묻히다.

2월 20일 고양아람누리미술관 주최 《교과서 속 현대미술전》(2.20-5.26, 고양아람누리미술관)에 〈Work〉(1965), 〈Work〉(1966), 〈Work〉(1967) 등 총 3점이 출품된다.

3월 7일 《6, 70년대 한국현대미술전》(3.7-3.24, 갤러리현대) 70년대 〈Work〉(1971), 〈Work〉(1973), 〈Work〉(1979) 등 총 3점이 출품된다.

3월 22일 《Spring Wear전》(3.22-4.21, AK Gallery)에 유화 1점이 출품된다.

5월 16일 한솔뮤지엄 주최, 《한솔뮤지엄개관전: 진실의 순간》(5.16-2014.2.28, 한솔뮤지엄: 원주)에 〈산〉(1957), 〈계곡〉(1958), 〈Work〉(1968) 등 총 3점이 출품된다.

7월 31일 경기도미술관 주최 《친절한 현대미술Ⅱ -추상은 살아있다》전(7.31-10.13, 경기도미술관: 안산)에 〈Work〉(1997)가 출품된다.

10월 1일 정연심, 김정은, 이유진 편, 이일 저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 하』(미진사)에 「1979 조형과 자

연의 변증법-유영국」이 수록되다.

10월 10일 서울미술관 주최《우보천리전》(10.10-2014.1.19, 서울미술관)에 〈산〉(1957), 〈Work〉(1968) 2점과 《DEEP&WIDE》(10.10-2014.1.19, 서울미술관) 〈Work〉(1963), 〈Work〉(1968) 2점이 출품되다.

10월 14일 윤난지 외 저 『한국현대미술읽기』(눈빛출판사)에 정하운의 「유영국의 회화 -동양의 예술관을 통한 서양미술의 수용」이 게재되다.

10월 29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명화를 만나다: 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10.29-2014.3.30,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산(지형)〉(1959), 〈Work〉(1967), 〈산〉(1967) 등 총 3점이 출품되다.

2014

3월 11일 《유명작가 판화 콜렉션》(3.11-4.29, 롯데갤러리 영등포점, 롯데갤러리 중동점: 부천)에 판화작품 〈산〉이 출품되다. 4월 17일 《어제와 오늘(대한민국예술원 개원 60년)전》(4.17-7.27,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 〈Work〉(1962)가 출품되다.

8월 12일 우양미술관 주최 《한국의 현대추상미술: 고요한 울림》(8.12-10.12, 우양미술관)에 유화 〈Work〉(1985), 〈산〉(1982), 〈Work〉(1979) 3점이 출품되다.

11월 28일 《거장 巨匠(Masters of Korean Art)전》(11.28-2015.2.15, 서울미술관)에 유화 〈산〉(1989), 〈산〉(1969년대) 2점이 출품되다.

박영택 저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 선구자 8명과 작가 109명의 계보가 그려낸 한국 현대미술의 풍경』(휴머니스트)에 「유영국-이상국-민정기-김선두, 한국 자연의 전신」이 게재되다.

이지운, 정현희 공저 『교과서 속 현대미술 이야기』(리젬출판사)에 「색면 추상의 창조자 유영국」이 게재되다.

2015

1월 18일 재단사무실을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8, 텍스빌딩' 에서 '강남구 역삼로 441 시상빌딩' 으로 옮기다.

4월 4일 《한일 근대미술가들의 눈 “조선에서 그리다” 순회전》(4.4-2016.2.2, 가나가와 현립근대미술관 외 6개 미술관)에 〈Work〉(1940), 〈산 있는 그림〉(1955), 〈Work〉(1940) 3점과 릴리프 〈Work R3〉(1938/1979년 재제작) 1점 등 총 4점이 출품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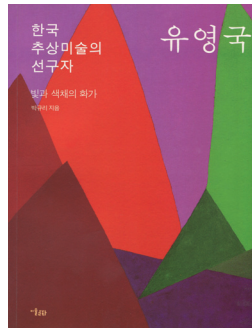
5월 23일 대전시립미술관 주최 《세기의 동행》(5.23-8.23, 대전시립미술관)에 〈Work〉(1968) 1점이 출품되다.

7월 21일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광복 70년 기념 한국근대미술소장품전》(7.21-11.11,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Work〉(1949) 1점이 출품되다.

2016

11월 3일 『유영국 절대와 자유-유영국(1916-2002) 탄생 100주년 기념전』(국립현대미술관 기획, 미술문화 출판)이 발행되다.

11월 4일 유영국 탄생 100주년 기념전 《유영국, 절대와 자유전》(11.4-2017.3.1,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이 열린다.



박규리 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 빛과 색채의 화가』

2017

1월 25일 박규리 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 빛과 색채의 화가』(미술문화)이 발행되다.

3월 29일 유영국 탄생 100주년 기념전 《유영국, 절대와 자유전》(3.29-6.25, 부산시립미술관)이 부산 순회전으로 열린다.

5월 26일 부산시립미술관 주최 《신사실과 추상미술의 지평》전(5.26-8.13, 부산시립미술관)에 〈Work〉(1953), 〈Work〉(1953) 등 총 2점이 출품되다.

9월 22일 문신미술관 주최 《모던아트협회_아방가르드를 꽃 피우다!》(9.22-11.26, 문신미술관: 창원)에 〈Work〉(1967), 〈Work〉(1982), 〈산〉(1957), 〈Work〉(1968) 등 총 4점이 출품되다.